

# 진리는 드러나 있으니 문 열면 서울, “열어라”

##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11월 24일 '백양사 아단법석' 나흘째, 향봉 스님은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임제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법문했다.

향봉 스님은 좌선지상주의의 간화선 수행풍토는 문제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향봉 스님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정(定)에 든다”면 이러한 무리들은 조작심의 수행자일 뿐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선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게 임제 선사의 가르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봉 스님은 “요즘 선방에 참선 수행자는 많으나 법거량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열린 선지식을 쉽게 만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조사어록을 통한 지혜의 안목은 간절심으로 시작해 간절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오로지 간절심 하나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통일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과 질의응답 요지.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논리와 표현을 갖춘, 법(진리)을 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비해 선어록은 어떠한가? 논리와 분석을 배격한다.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이원론을 버리면서도 일원론에 머물지 않는다. 연기의 법칙인 존재론적 상의성과 연관성마저 훑을 벗어버린다. 선어록에 있어 사고나 설명은 죽은 송장에 채찍질을 하는 경우처럼 의미를 잃고 만다.

어떤 학자는 조사어록을 설명할 때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거나 표현했지만, 어록에 담긴 정신은 형이상학 쪽 보다는 형이하학 쪽에서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어록에는 두면이 없다. 형이상학도 형이하학도 아닌 것이다.

<법화경>의 한 구절처럼 일체만물이 본래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것으로 관조하되 텅 빈 것에 머물지도 않는다. 텅 빈 가운데 충만이 있고 충만 가운데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선불교의 거목인 임제 스님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유행을 네 가지로 분류해 참사람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주체를 버리고 객체를 남겨두는 경우, 둘째는 객체를 버리고 주체를 남겨두는 경우, 셋째는 주체와 객체를 다 버리는 경우, 넷째는 주체와 객체를 다 남겨두는 경우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집과 편견에 의해 나(我)라고 하는 주관적 생각들이 걸려야만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보이는 대상에 따라 마음의 작용이 쉬임이 없으나, 존재론적인 근원의 움직임을 깨달아 산을 보아도 산일 수만은 없고 물을 보아도 물일 수만은 없는 것을 말한다.

셋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사물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눈을 뜨게 되



지만, 상대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이 참나를 이뤄 걸림과 막힘이 없는 대자유의 참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산은 산인 그대로, 물은 물인 그대로 차별이 없는 참사람의 열린 지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곧 마음을 바로보아 부처를 이루는 선(禪)의 생명이자 어록의 특징인 것이다.

임제 스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선사들은 깨달음을 성취한 뒤 떠난 자리를 뒤돌아 온다. 치열한 정신력의 간절심으로 한 바퀴를 돌아와 버릴 객체도 머물 주체도 없는, 상대가 적멸한 절대의 무념처(無念處)에 이르게 되면 객체는 객체 그대로, 주체는 주체 그대로 '평상심이 도(道)'가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 아님이 없으며 웃 입고 밥 먹으며 졸리울 때 자고 목마를 때 물을 먹는 무위진인이 되는 것이다. 사바에도가 당생극락(當生極樂)이 되어, 임제 스님이 즐겨 쓰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참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임제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열린 마음의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열원하는 사람은 집착과 분별심에서 벗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힘써 슬픈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절심으로 정진하되 주체와 객체의 두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해야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중략)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

나면 나한을 죽이고 그가 부모이면 부모를 죽이고 그가 친척이면 친척마저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최상의 해탈인 대자유인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막힘과 걸림이 없는, 차별 없는 무위진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만을 죽이면 안 된다. 나 까지도 내 몸 똥이마져도, 차별심과 집착심마저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던져 송두리째 태울 수 있는 그런 간절심이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지름길과 열쇠마저도 버려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전등록> <선문염송> <조당집> <벽암록> 등의 조사어록에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널려 있다.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천 개의 열쇠가 박혀 있다. 다만 우리가 지름길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열쇠의 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착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어록에는 말과 글의 한계를 벗어난 것들만의 자유로움이 격외도리(格外道理)로 추추고 있다.

지도점점이 없는 단일한 체제에서는 도인이 나오기 어렵다. 하루 속히 개선이 돼야 참 선지식이 출현할 것이다.

**토론자(비구니)** : 법주스님 말씀처럼 자기 공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선방의 분위기인 것 같다. 활발 발한 문답이 늘 아쉬웠다.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향봉 스님** : 마흔 살까지 불교신민이나 총무원 소임을 보고 책도 많이 썼지만, 아버님이 입적을 계기로 생사문제가 화두로 다가왔다. 내장사에서 아버님 49재를 모시는데, 팔순의 어머니가 “49재를 지내면 아버지가 오시느냐?” “49재를 지내면 영혼이 왕생극락 하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진공(眞空)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너무나 캄캄해 딱 막힌 화두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인도에서 수행할 때,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 마디가 박살나듯 고통스러웠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극한상황에서도 일종의 오기가 나서 ‘영혼

## 차별심·집착심도 태울 간절심이 깨달음의 열쇠 집착의 병 앓고 있기에 열쇠의 임자 되지 못해

조사어록에 널려있는 지혜의 말씀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수가 되고 화살이 돼 환한 빛줄기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사어록의 바다에서 생선 한 마리 건지지 못하는 것은 달려있는 마음 탓도 있겠지만 속어(俗語)와 고어(古語)에 대한 무지도 채찍을 맞아야 할 허물임을 밝혀 둔다.

조사어록을 훑는 지혜의 안목은 간절심으로 시작해 간절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오로지 간절심 하나로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통일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선지식이 될 수 있을 터이다.

진리는 드러나 있다. 문은 활짝 열려있다. 개문즉장안(開門卽長安)은 열면 서울이다이다.

### 질의응답

**토론자(우바세)** : 선방에 있는 2200여 수좌들이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가? 재가자로서 존경심이 떨어져 마음이 불편하다. 수좌들의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향봉 스님** : 100여 개가 넘는 선원에 5가지 병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병, 법거량을 두려워하는 병, 안거 횡수에 따라 서열과 소임이 정해지는 병, 선원장 이상의 소임을 맡을 경우 한 곳에 주저앉는 병, 문중 위주로 조실·방장이 정해지는 병이 그것이다. 선문답이나

은 있는가, 없는가? ‘왜 내게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가?’ 하는 일종의 ‘자연 화두’가 자리잡았다. 인도에서 1년 정도를 지냈을 때 때때로 스님이 한국에서 보 내온 포켓용 달력에 쓰여진 ‘조주 무(無)자 화두’에 대한 글귀를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을 느끼며 종교적 체험을 했다. 선어록과 일체 만사를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후 나는 인도, 티베트, 네팔, 중국에서 15년간 만행을 하고, 5년전 익산 사자암으로 와서 조용히 지냈다.

**토론자(우바세)** : ‘조주 무자’는 어느 방향에 존재하는가?

**향봉 스님** : 거사님! 거사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토론자(사미)** : (거사님! 거사님! 하고 부른 후 박카스 병을 질문자인 거사에게 살면서 던지는 거랑을 합)

**향봉 스님** : 거사님은 무아(無我)의 참뜻을 아는가?

**토론자(우바세)** : 모른다.

**향봉 스님** : 모르면서 선문답을 흥내 내는 것은 영무새나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향봉의 본래면목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질문에 “흐르는 물이 안개 때 비바람을 몰고 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인들의 말귀나 흥내 내는 것은 자기도 속이고 대중도 속이는 일이다.

김성우 기자 budknapia5@hanmail.net

## 학술 세미나 -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 진관사에서 발굴된 독립운동자료의 역사적 조명 -

- ◆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13시 ~ 18시
-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 ◆ 문 의 : 진관사 종무소 02)359-8410

■ 개최 및 의의

■ 1부 : 기초 발제 · 강연 / 사회 : 김주용 (독립기념관)  
진관사에서 발굴된 자료의 독립운동사에서의 가치 -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  
진관사 독립운동 자료의 발굴 경위 및 문화재적 가치 -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 2부 주제발표

1.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 김광식 (동국대) / 논평 : 한동민 (수원박물관)
2. 진관사 태극기에 대한 종합적 고찰 - 한철호 (동국대) / 논평 : 송명호 (서울시, 태극기 전문가)
3. (신대한)신문과 신재호의 민족운동 - 김주현 (경북대) / 논평 : 박길순 (충북대)
4. (자유신종보)와 상해지역의 독립운동 - 한상도 (건국대) / 논평 : 강영삼 (이화여대)

■ 논평 및 종합토론 / 좌장 : 정재정 (서울시립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 주관 : 삼각산 역사문화보존회 ◆ 후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독립기념관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합장

## 해성불원(海城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부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피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서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짐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2. 공 증

상 담 010-9955-9093

3. 친지방문

4. 국제취득신청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베트남=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불교가족 선남 선여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여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가족사상자제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담스님 만 해 합장